



안전에서는 너와 나 따로가 아닌 하나다.

제일건설(주)풍영초등학교 신축현장

길가에 개나리가 활짝 핀 것을 보면서 남
 녀는 벌써 봄이 시작되었구나 하면서 남
 도 예향의 도시인 광주를 찾았다. 평소
 와 달리 이번 취재 현장은 초등학교 건
 설공사 현장으로 아담한 규모였다. 21
 세기의 미래교육에 대응할 교육공간
 으로 피로티, 경사램프, 가벽 등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표정이 풍부한 공간을 연출
 하고, 창조적 감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로운 형
 태의 공간이 배치된 도면을 보고, 예전 Bx형의 천편
 일률적인 초등학교 설계와 많은 차이점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 건물형태의 다양성이 어린이
 의 감성과 지성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
 면서 정돈된 풍영초등학교 신축현장(소장 임채남)으
 로 들어갔다.

2001년 7월 착공
 하여 200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약 57%로
 2002년 6월 1차 준
 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었다.



▲ 임채남 소장

저 동료가 바로 나 자신 일수도 있다.

풍영초등학교 현장은 제일건설(주)동
 원토건(주)에서 시공 중인데 안전관리
 자 선임대상 현장이 아니지만 노동부
 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술지도
 도 받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 있었다.

임채남 소장에게 안전에 대하여 물어 보았

다. 일상처럼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때 퇴근해야 하는
 데 사고가 나고, 대부분은 완쾌되지만 그중 일부는 불구
 가 되어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가
 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 15층에서 원치로 인양작업 중 고리가 풀려 자
 재가 추락하여 동료 직원 한사람의 뒷목을 강타하여 하
 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어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 수밖

에 없는 처지가 되었
 다. 병문안을 가보니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힘들어하
 는 것을 보고, 몹시 안
 타까워하면서도 ‘저
 동료가 바로 나 자신
 일수도 있다’는 생각
 을 하면 섬뜩해진다
 며, 새삼 안전의 소중
 함을 깨닫게 되었다



▲ 공사전 안전에 대한 대책을 계획한다.

고한다.

안전은 나의 행위로 인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동료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료에게도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안전시설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 경영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현장의 안전수준이 향상된다면서 우리 안전관리 현실의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잔여 위험공정으로는 체육관 강당의 철골트러스 작업이 남았는데 작업발판을 매기가 힘들어 추락 위험이 높은 공정이므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및 안전시설, 안전담당자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재해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중·소규모 현장 안전활동의 현재

정병을 안전관리자에게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을 물어보았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모두에게 배운다는 입장으로 “일단 사람이 안



다쳐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아침에 인상 찌프리고 오는 작업자에게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일이 끝날 때 길목에서 “어르신 오늘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는 인사 속에 서로의 유대감이 생긴다고 한다. 특히,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 물을 얼려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몸소 느낀다. 강압적인 지시가 아닌 거부감이 덜 들게 하고, 안전 스텝으로서 현장 소장과 근로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많이 따라주는 편이다. 안전교육도 예전에는 숨어서 자는 사람도 많고 했었는데 요즘은 따로 연락을 안해도 잘 모이고, 또 근로자들의 관심이 많은 건설 사망재해사례의 자료 등을 Copy 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됩니다”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참여의식을 갖게 한다”고



한다.

Good Quality, Good Price

창업 24년, 주택건설 24년의 제일 좋은 집, 제일 행복한 집을 만드는 제일건설(주)(대표이사 유 재선)는 창사 이래 양보다는 질로, 외관보다는 내실에 바탕을 둔 장인정신으로 “Good Quality, Good Price”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주택건설을 선도하고 있다. 제일건설(주)는 품질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실시공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품질경영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만족을 실현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도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1978년 4월에 설립된 이후 1992년 현상호인 제일건설(주)로 변경하고, 1997년 자회사 동원토건(주)

를 면허 취득하는 등 중견 건설업체로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7년 ISO 9001 인증 취득(KQC-0426), 2001년 ISO 14001 (KS A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과 환경을 중시하면서, 또한 안전관리에도 힘을 기울여 2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 신고하고, 또한 기술지도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본사 차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외부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및 환경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에 투자를 아

끼지 않고 있다. 그런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환산 재해율이 1.06%에서 0.53%(자체 집계)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일구어냈다.

나와 동료는 한 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임채납 소장의 당부말씀을 들어 보았다. “온 가족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빠가 무사히 귀가했을 때 행복이 느껴질 것입니다.” 라면서 안전은 앞서도 말했듯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동료에게 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작업을 위해서 일시 철거했던 안전시설을 ‘설마’ 하면서 방치하지 않고 작업 종료시 바로 원상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항상 나와 내 동료가 한 몸이라 생각하며, 안전에 철저를 기하면 이 땅에서 재해는 사라질 것이다.” 고 강조하는 모습



▲ 안전협회와 안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

에서 중소기업체의 안전에 대한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길 기대해 본다. 

(취재 : 오영수, 사진 : 최종덕)